

일곱번째... 첫번째...

김선임 해금 독주회...아쟁 첫 선
내일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원인 김선임씨는 해금 수석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학 시절부터는 부전공으로 아쟁을 배웠다. 여러차례 독주회를 열었던 김씨가 처음으로 해금과 함께 아쟁 연주를 선보이는 공연을 준비했다.

김씨가 5일 오후 7시 서구빛고을국악전수관 공연장에서 7번째 독주회를 갖는다. 국악전수관 목요상설공연 초대 행사다.

‘찰현(絃絃)의 농(弄)’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의 첫곡은 아왕제씨의 장교 반주로 선보이는 ‘지영희류 해금 산 조’. 이어 대금의 조수희(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원)씨와 함께 아쟁으로 ‘육자배기’를 연주한다. 마지막 곡은 아쟁 스승이자 오빠인 김선제씨와 함께 ‘찰현의 농’을 연주한다. 산조의 기본틀을 유지하며 아쟁과 해금이 서로 주고 받으며 자유롭게 연주하는 게 특징이다.

전남대 국악과를 거쳐 동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한 김씨는 전남대 겸임교수, 목원대 강사 등으로 활동중이다.

공연 시간 30분 전에는 해금 제작 과정을 보여주고 악기를 직접 연주해볼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한다. 전석 무료. 문의 062-350-455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초기 불교와 인문학

인문지행 8일 무료 기획강좌



인문학 연구 공동체 ‘인문지행(대표 심옥숙)’이 ‘인문지행의 문화 예술 기획’ 4번째 행사를 마련했다. 8일 오후 2시 ‘영화의 집’(광주극장).

이번 행사의 주제는 ‘초기 불교와 인문학의 의미-붓다는 무엇을 깨달았는가’이다. 강사는 전남대 철학과 이종표(전남대 호남불교문화연구소 소장·사건) 교수다. 범한철학회 회장을 지낸 이 교수는 ‘정선 디카니카’, ‘붓다가 깨달은 연기법’ 등을 펴냈다.

이 교수는 이번 강좌에서 붓다가 가르치는 삶의 의미와 본질에 대해 들려준다. 이번 특별강연은 1시간 동안 이종표 교수의 강연과 30분 정도를 자유로운 대담 방식으로 진행된다.

인문지행은 정기 강좌 이외에 ‘인간의 탄생, 그 현장에 스며들다-피렌체 우피치 미술관을 중심으로’ 등 기획 강의를 진행해왔다.

참가비는 무료. 인문지행카페 cafe.daum.net/h-arete. 문의 010-2656-920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연극 ‘어게인 2014’

〈극단 ‘얼·아리’ 전국연극제 대통령상 등 3관왕〉

전국연극제 예선 겸 광주연극제... 12~20일 문예회관

‘까치놀’·‘Y’·‘크리에이티브 드라마’ 등 5개팀 참여

지난해 광주 연극계에 큰 경사가 있었다.

극단 얼·아리의 ‘발톱을 깎아도’가 제32회 전국연극제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양정인씨와 노희철씨는 연출상과 남자연기상까지 거머쥐었다. 얼·아리의 수상은 극단 진달래 피네가 ‘취선록’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한 지 16년만이었다.

광주 연극은 1회 대회에서 극단 시민이 ‘소작지’로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저력을 과시했다.

지난해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을까. 제33회 전국연극제 광주시 예선전을 겸한 제29회 광주연극제가 오는 12일부터 20일까지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광주연극협회(회장 정순기)가 주최하는 이번 경연에는 모두 5팀이 참여한다.

극단 ‘까치놀’은 최근 창단 30주년 기념작으로 무대에 올렸던 ‘그것은 목탁 구멍 속의 작은 어둠이었습다’(12일 오후 7시30분)로 경연에 참가한다. 이만희 작가의 희곡으로 미대 교수 출신 도법 스님이 불상을 만들며 겪게 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김영록 연출로 이영민·심성일씨 등이 공연한다.

극단 Y는 한중근씨가 연출을 맡은 ‘늦은 행복’(14일 오후 7시30분)을 무대에 올린다. 작품의 주인공은 인생의 황혼에 다다른 노부부다. 추

운 겨울날 치매에 걸린 할머니와 자신의 병을 알아가며 그런 할머니를 살뜰히 챙기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박규상·윤미란씨가 노부부역을 맡아 열연한다.

극단 크리에이티브 드라마는 ‘환상교향곡’(16일 오후 7시30분)을 공연한다. 이현기씨 연출로 채민석·장도영·표진희씨가 출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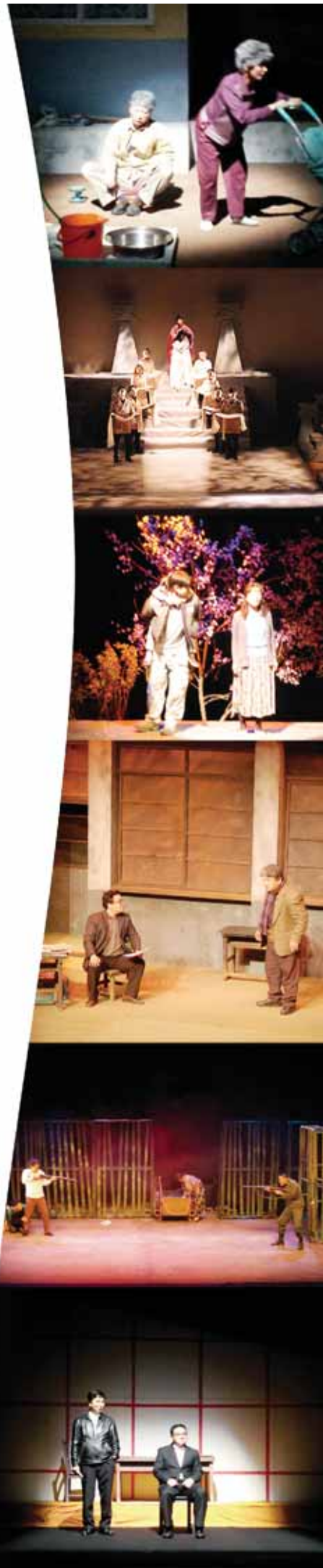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휘자인 이상은 알츠하이머 환자다. 그를 지켜보던 간호사는 이상의 수첩에서 연락을 끊고 지내던 둘째 아들 전수의 전화번호를 알아내 연락하고 두 사람은 몇십년만에 해후한다.

극단 ‘얼·아리’는 ‘왼쪽을 바라’(18일 오후 7시30분)를 공연한다. 극단 대표 양태훈씨가 연출을 맡았으며 노희철·정경아·고남영·양정인씨가 출연한다. 10년 동안 아픈 남편을 돌보던 아내 앞에 어느날 20대 여자가 등장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극단 시민의 ‘나이트’(20일 오후 7시30분)는 예술과 외설 사이에서 고민하는 노년의 예술가의 삶을 그리고 있다. 박규상·이현기·한중근·최효주씨가 출연한다.

올해 전국연극제는 오는 6월 울산 문예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티켓 가격 일반 2만원, 중고생 1만원. 문의 062-523-729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비엔날레 감독 선정 지역 미술인 참여

시민협 구성, 나상옥 미협 지회장 등 위원 7명

광주비엔날레 예술 감독 선정 과정에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한다. 2016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은 오는 4월 말 최종 선정된다.

광주비엔날레재단(이사장 전용철)은 예술감독 선정 과정에서 지역 미술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예술감독 선정 시민협의회’를 구성했다고 3일 밝혔다.

‘광주비엔날레 혁신위원회’가 최근 내놓은 혁신안에서 광주비엔날레 감독 및 주제 선정 과정에서 국내 및 지역과의 소통 시스템 구축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지역 미술인들의 의견을 듣는 채널을 강화한 것이다.

위원회는 고영재(광주롯데갤러리 큐레이터), 나상옥(한국미술협회광주광역시지회장), 이이남(미디어 아티스트), 장용훈(광주청년미술작가회장), 정송규(무등현대미술관장), 채종기(은암미술관장), 허달용(광주민족미술인협회장) 등 7명이다.

예술감독 선정 시민협의회 위원 중 2명은 향후 감독선정 국제자문위원회 지역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들은 국내외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국제자문위원회와 함께 활동하게 된다.

국제자문위원회가 예술감독 후보를 추천하면 재단 이사 3명으로 구성된 이사회 소위원회가 면접을 통해 최종 예술감독 후보를 선정하고, 이사회를 거쳐 오는 4월말 2016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을 발표한다.

이와 함께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지역 큐레이터를 공동 큐레이터 혹은 보조 큐레이터로 선임해 전시 참여의 기회도 제공할 방침이다.

또 재단은 지역 사회와 소통을 위한 시민사회 협력기구인 ‘광주비엔날레 발전위원회’(가칭)도 운영한다.

한편 재단은 혁신안을 토대로 오는 3월말까지 종합발전안을 마련하고 4월 초 발표할 계획이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봄이 스며드네 한지 위에



‘봄-축제’

권혜련展 4~10일 서울 경인미술관

화가 권혜련씨가 미술관을 찾기로 감한다.

권씨는 4일부터 10일까지 서울 경인미술관 제6전시실에서 전시회를 연다. 권씨는 민들레, 개나리 등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꽃을 소재로 한 작품으로 봄을 맞이한다.

그동안 유화 작업을 해온 작가는 이번에는 먹과 한지로 소재를 바꿨다. 한지에 먹으로 선을 그고, 수채화 느낌으로 채색한 작품들이 서정적으로 다가온다. 작가는 꽃들이 함께 피어 있는 풍경을 통해 어울려 살아가는 삶의 중요함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권씨는 독일 슈투트가르트 대학 건축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석사를 마쳤다. 제4회 동작현충미술대전 은상을 수상했고 제51회 목우미술대전과 제20회 행주미술대전에서 입선했다. 문의 02-733-4448. /김경인기자 kki@

생오지문예창작촌 7일 창작대학 입학식

이경철 시인 특강

신인문학인의 산실로 전국적 명성을 드높여온 (재)생오지문예창작촌(이사장 문순태)이 2년 과정의 문예창작대학 입학식 및 개강식을 7일(오후 2시) 광주빛고을 시민문화관(4층 다목적실)에서 갖는다.

이번 입학식에는 시·소설·글쓰기반 90여 명이 입학해, 향후 작가로서의 진로를 다지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특히 이날 입학식 이후에는 광주

출신 이성부(1942~2012) 시인을 기리는 행사도 개최된다. 광주 9회 동창회가 주최하고 생오지문예창작촌 주관으로 ‘무등산 시인 이성부를 만나다’ 주제로 열리는 이번 기념식에는 추모시, 추도사, 시낭송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시인인 이경철 평론가는 ‘이성부 시인의 시 세계’를 주제로 생전의 시인이 추구했던 문학적 지향 등에 대해 특강을 한다. 문의 061-381-2405. /박성천기자 skypark@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파주(주)빛정 5회 연속 선정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에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연회장 세미나 가족모임 상견례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게임동 홀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oojang.com 각종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특허방수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고요? 20년은 가는데!!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시공과정: 시공전 / 단열베이스카펫시공 → 단열베이스카펫 / 트라이슈머시트시공 → 트라이슈머 타포팅 시공 → 옥상 시공 후

결로·곰팡이 단열까지 한번에~!

아트패션시트® 곰팡이 결로 단열시스템

완벽한 3중 단열로 결로, 곰팡이 방지는 기본!
겨울에는 따뜻~ 여름에는 시원~ 탁월한 냉,난방비 절감효과 (20~30%)
새집증후군 예방효과, 명품디자인으로 바뀌주는 리모델링 효과까지!

이파엘지의 특허공법!!

배란다 시공전 시공후

본사: 전속모달 밸런스 이영후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전남대리점 (062)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대리점 T.(061) 284-0485
여수대리점 T.(061) 683-0485
순천대리점 T.(061) 726-0482
광양대리점 T.(061) 795-0485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